

‘동주 해외작가상’ 윤희경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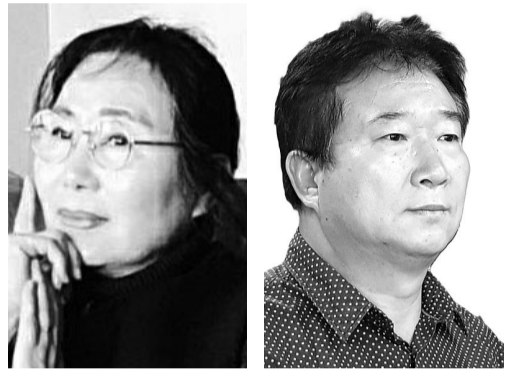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주관하는 동주해외작가상,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시상식이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 시상식 후 기념 촬영 모습. <시산맥 제공>

운동주 시인 시 정신 구현·확산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주관 해외작가특별상엔 김오 시인 시드니 셰퍼드스베이서 시상식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제9회 동주문학상 해외작가상과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로 각각 시드니에 거주하는 윤희경 시인, 김오 시인이 선정됐다.

광주일보와 동주문학상제전위원회,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주문학상은 본상 선정에 앞서 이번에 해외작가상과 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를 먼저 선정했다. 시상식은 최근 시드니 셰퍼드스베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문정영 시산맥 대표, 현지 시드니 작가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9회 동주해외작가상을 수상한 윤희경 시인은 2015년 계간 '미네르바'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재외동포문학상, 제10회 경북일보문학대전 시 부문에 수상했다. 시집 '대티를 솔티라고 불렀다', '빨간 일기예보'를 펴냈으며 현재 '문학



윤희경 시인 김오 시인

과시드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사를 맡은 장석주 시인, 송재학 시인, 김이듬 시인은 윤희경 시인의 작품에 대해 "탐미주의자 고초를 호명하여 여름 저녁 하늘의 색채와 오버랩 시킨 전략이 유효하였다"며 "우울한 남자 고초에 대하여 화자의 시선을 빌려 여름 저녁 하늘에서 자포니즘 코발트블루를 탐구하는 시인의 시적 눈높이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또한 "더불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질적이면서도 섬세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묘사되고 있어 시인이 가진 시정신이 맑고 깊다"고 덧붙였다.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으로 운동주 시인의 민족에 대한 깊은 뜻을 떠나가

는 일을 시로 이어가는 이에게 주어야 하는 상이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글을 쓰는 문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취지다.

'잠깐' 등 5편으로 제9회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을 수상한 김오 시인은 경기도 동두천 출생으로 1987년 9월 시드니로 이주했다. 1993년 '호주동아일보' 신년문예에 시로 등단, 1994년 '시향' 동인지에 세 편의 시를 실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깡겨루의 집', '플래밍턴 고동어'가 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김이듬 시인의 특강도 펼쳐졌다. 김 시인은 '국제 시 축제와 한국시의 위상'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시인은 해외에서 한국시가 가진 위상과 금년 국제 시 축제에 다녀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한편 문정영 시산맥 대표는 "이번 동주해외작가상과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을 수상한 윤희경 시인, 김오 시인에게 축하를 전한다. 지역만리 해외에서도 모국어로 시를 쓰며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시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동주문학상 제정 취지에 맞게 좋은 시를 쓰며 의미있는 활동을 펼치는 분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굿·두레·제의... 전통문화로 본 마을 공동체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마을 프로젝트 다음달 1일까지

인문학을 매개로 학교와 학교 밖을 연결하는 인문마을 프로젝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이 진행하는 인문마을 프로젝트는 생활 속 인문학, 주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문학을 대학 내에서만 공유되는 '강단의 인문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접하고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실천과 실천을 제안하며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호남학연구원원 이하반기에도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는 11월 1일까지(매주 금요일) 용봉동 마을 발전소에서 열리는 프로젝트는 '우리 문화로 바라본 마을과 공동체'를 주제로 운영된다.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는 장현규가 맡았다.

이번 인문마을 프로젝트의 주 교재는 주강현 박사의 '굿으로 보는 우리 문화의 이야기'로, 주박사는 우리문화의 다양한 생활문화, 풍습 등을 특유의 시각으로 맛깔스럽게 풀어낸 인문학자다.

프로젝트 주제 '우리 문화로 바라본 마을과 공동체'는 굿을 비롯해 두레, 제의 등 전통 공동체 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프로젝트 문은 '대동회의로 바라본 마을과 공동체' (10월 18일), '일과 놀이로 바라본 마을과 공동체' (10월 25일), '현재의 마을에서 공동체는 가능할까?' (11월 1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풍속으로 바라본 마을과 공동체', '제의로 바라본 마을과 공동체'가 진행된 바 있다.

정명중 호남학연구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전통문화가 마을공동체 결속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함께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불편시대, 횡단적 보편화'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라는 아젠다로 인문학극플러스(HK+2)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도심 속 정원 거닐며 음악으로 힐링

1호 민간정원 '휴심정' 16~26일 '쉽 페스타' 국악·클래식·재즈 등



휴심정 잔디정원에서 진행했던 '휴심정 쉽페스타 Phase1' 공연 장면. <광주성악가협회 제공>

'H.U.G 힐링음악회', '자선음악회', 'He2 헤이! 안녕 휴심정'.

광주1호 민간정원 휴심정(대표 박화실)이 '쉽 페스타 Phase.2-문화향유'을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휴심정 일원에서 연다. 공연장을 벗어나 정원을 거닐며 국악, 클래식, 재즈 및 성악 레퍼토리를 즐기는 프롬나드(산책) 형식의 음악회다.

행사는 'H.U.G 힐링 음악회'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5시 막을 올린다.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과 더블베이스 김하성, 소프라노 송주혜, 테너 송태왕 등이 함께 '안아주다'라는 주제로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색소폰 연주에 강철성, 드럼에 윤영훈.

광주성악가협회 등이 함께하는 '자선음악회'는 19일 같은 시간 지역민을 찾아온다. 공연기획가 정수영의 해설과 함께 한국곡, 세계 명곡을 부르며 김선희(소프라노), 임선아(메조소프라노), 김치영(바리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귀복의 '얼굴', 이수인 곡 '내맘에 강

물, 최진의 '시간에 기대어'를 부른다.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HE2 헤이! 안녕 휴심정'은 26일 휴심정 일원 세컨드원 테라스에서 펼쳐진다. 국악과 클래식, 전자 현악의 조화를 통해 고전 음악을 현대화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소리꾼 공현지를 비롯해 박선양(가야금), 변재홍(일렉첼로), 변재현(일렉 5현 바이올린) 등 젊은 감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한다. 쿨의 '아로하', 엘가 '사랑의 인사' 및 안재욱의 '친구' 등이 울려 퍼진다.

휴심정을 조성한 서근중 이사는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과 웰니스 콘텐츠를 결합,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콘텐츠를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VIP석 2만원, R석 1만원. 행사 수익금 일부 자선단체 기부.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계 美 작가 김주혜, 러 톨스토이 문학상

일제강점기 한반도 배경 '작은 땅의 야수들' 해외문학 부문 영예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사진)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랴나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주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불소이극장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키릴 바티긴과 함께 해외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인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는다.

김주혜는 해외문학 부문 최종 후보 10개 작품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울가 토카르추크 등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한국계 작가의 소설이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의 나라 러시아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김주혜의 데뷔작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낸 장편소



설로, 국내에는 2023년 다산복스를 통해 출간됐다.

러시아에서는 바티긴의 번역으로 인스피리아에서 출간됐다.

김주혜는 수상 발표 전 다산복스에 '영광스럽다. 개인적으로 늘 러시아 문학의 철학에 빛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유산인 호랑이를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린 기회가 된 것 같고, 더 넓게는 우리 문화와 역사의 긍지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후보에 오른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연남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